

일하는 부모를 위한 자녀양육 지원방안

: 미취학 아동을 중심으로

배 옥 현(경북여성정책개발원)

이 연구의 목적은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미취학 아동을 둔 일하는 부모를 중심으로 자녀양육 실태 및 정책욕구를 살펴봄으로써 경상북도의 향후 자녀양육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하며, 일·가정 균형을 위한 이들 부모의 요구를 충족하고 실효성 있는 자녀양육 지원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첫째, 조사대상자는 경상북도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학 아동을 둔 일하는 어머니 397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둘째, 설문조사는 미취학 아동을 둔 일하는 부모의 일반적 특성(거주 지역, 취업여부, 미취학 아동 유무, 취업 어머니 등에 관한 사항), 자녀양육과 일·가정균형 실태 및 정책수요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셋째, 조사도구는 구조화된 질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를 이용하였다. 넷째, 조사기간은 2012년 5월 21일부터 6월 21일까지 실시되었으며, 회수된 자료 전체에 대해서는 SPSS 사회과학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를 통해 본 시사점을 토대로 하여 정책방안을 살펴보면 첫째, 개별보육을 위한 아이돌보미 서비스나 가정보육교사제 양성을 개선, 활성화하고, 조부모/친인척 양육지원, 가족품앗이, 개별보육에 대해 보육비를 지원한다. 둘째, 자녀가 아플 때,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사회적 장치로써 ‘캥거루(Kangaroo Mom)’ 프로그램 운영, 어린이집/유치원 내에 보건실 설치, 병원과 연계서비스를 실시하여 야간 공휴일 소아진료기관 확대, 자녀간병휴가제도 및 자녀건강돌봄휴가제도의 강제 이행이 요구된다. 셋째, 자녀양육에 필요한 정보를 얻거나 상담 및 자녀문제 해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도 단위의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시군단위의 ‘육아지원센터’ 설치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넷째, 직장의 일·가정균형제도를 강제조항으로 개정하고,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하는 등,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가 필요하다. 다섯째, 아버지 육아교실 프로그램을 거주 지역 내 아버지의 직장 내에 개설하고 아버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여섯째, 취업모의 과반수는 실제 자녀를 돌보는 일이 자신에게 부과되어 있으며, 부부만의 시간을 가질 수 없고, 개인발전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없어서 갈등을 많이 느끼고 있으므로 일하는 부모를 위한 일·가정균형 제도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회문화 전반에 변화가 요구된다. 일곱째, 농촌의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지역단위의 물리적 환경 재정비로써 지역여건에 따라 마을회관이 나 노인정을 활용한 공동육아 돌봄 공간이나 실내외 놀이터 같은 시설 설치를 검토하며, ‘서울형 어린이집’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경상북도의 육아지원센터의 홈페이지에 ‘아이사랑 나눔터(가칭)’를 개설하여 온라인상에서 육아용품의 교환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찾아가는 서비스로 이동식 놀이버스 사업, 이동식 보건소 사업 등의 방안을 제안한다.